

여수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전국 유일 2곳 선정

송도·송고항 등 전남도 6곳 2028년까지 138억원 투입돼 경제·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해양수산부가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대상지를 발표한 가운데 여수시가 전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되며 어촌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읍 송도항

과 남면 송고항이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제·생활 플랫폼 조성 및 안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정부 역점사업으로, 전국 41개 지자체에서 98곳이 후보지로 신청했으며 여수 송도·송고항을 비롯해 전남도에서는 6곳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97억여원을 확보, 돌산 송도항과 남면 송

고항 지구에 4년간 138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송도항에는 어촌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100억원을, 송고항에는 어항개선을 통한 기능 회복에 38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어항기반시설이 건설되는 송도항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력인 어촌엔지니어 상주할 예정이다.

어촌엔지니어는 지역에 상주하며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는 민간단체로, 사업 기간 주

민과 함께 경제활동 및 생활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송고항의 경우 물양장 등 어업 필수시설과 생활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어민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겠다”며 “다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는 어촌생활 플랫폼조성사업 2개소와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사업 4개소가 선정되며 3년 연속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갔다.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사업에는 여수 송도항과 완도 동고항이 선정됐으며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에는 여수 송고항, 보성 해도항, 무안 도대항, 진도 동현항이 선정됐다. 이로써 전남도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소 어촌마을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돼 255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오은영 박사 초청 ‘자녀와의 공감 대화법’ 개최

보성군은 오는 3월20일 오후 3시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를 초청해 ‘제371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자녀와의 공감 대화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형성 및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통찰과 자녀와의 소통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올해 첫 보성자치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오은영 박사는 MBC ‘오은영 리포트’, 제

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부모 교육 및 심리 상담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입장료는 1인 3000원이며, 사전 신청 접수는 오는 3월3일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한 온라인 예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매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총무과(061-850-5120-5122)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양중수 기자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장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5000만원을 포함한 35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군은 전년도 사전 수요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345개소, 태양열 55개소, 지열 5개소 등 총 40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흑두루미의 날’ 기념... 순천만 탐조 여행 운영

철새 탐조·흑두루미 공작 체험 등

순천시는 28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2025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기념 특별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순천 시조(市鳥)인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매년 2월28일을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로 정하고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역시 ‘흑두루미의 날’을 맞아 순천만에서 겨울 철새들의 아름다운 비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탐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생태철학을 기반으로 순천만 생태 복원을 추진한 결과, 전 세계 생존 흑두루미의 절반인 7600여마리가 월동하는 세계적인 월동지가 됐다. 새와 인간의 신뢰 형성으로 흑두루미 탐조 거리는 20m로 좁혀졌으며 ‘람사르길’이 세계적인 탐조 명소가 되면서 비수기에도 철새를 보러 오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은 국내 탐조 문화 확산을 위해 (사)순천만생태관광

협의회 주관으로 ‘새+물결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탐조 전문가와 함께 갯벌과 농경지에서 멸종위기종 희귀 철새를 탐조하고 흑두루미 공작 체험을 진행, 참가자 전원에게는 순천만습지에서 준비한 건강식 다과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1일 선착순 28명으로 사전에 구글폼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참가비는 성인 1인 3만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만5000원이다.

갈대잎의 사그락거리는 소리와 맨발 걸기를 결합한 ‘사운드 탐조’와 ‘워킹 탐조’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사운드 탐조’는 일 3회 1시간 코스, ‘워킹 탐조’는 일 4회 2시간 코스로 운영된다. 특히 워킹 탐조 7시 프로그램은 순천만 일출과 함께 흑두루미가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7세 이상 회당 15명 선착순으로 순천만습지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하며 유료로 운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봄맞이 가족 탐조 여행으로 복상을 시작한 흑두루미의 건강을 기원하고 남도의 대화꽃 속에서 가족 간의 정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과역어린이집에서 치과 공중보건의가 원아들에게 칫솔질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어린이 꿈나무 통합 건강교실 운영

고흥군은 오는 11월까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3개소 총 39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꿈나무 튼튼 통합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꿈나무 튼튼 통합 건강교실은 미취학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

강증진을 위해 영양, 운동 습관 형성, 흡연 예방, 구강 교육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어린이와 1:1로 올바른 칫솔질 실습을 진행하고, 운

동처방사와 함께하는 운동 놀이, 책자와 동영상 활용 영상교육 등으로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한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이 어릴 때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건립 ‘안전기원제’ 개최

포스코와 상생·협력 랜드마크 부상 기대

광양시와 포스코가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영원의 봉수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건립사업은 이번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착공에 돌입한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날 구봉산 정상에서 개최된 기원제에는 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비롯해 박종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 광양시의회 송재천·정구호·김보라 의원, 박옥병 골약동장, 박상기 골약동 통장협의회장 등 시민과 포스코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건립사업’은 광양시와 포스코가 상생 협력을 통해 구봉산 정상에 체험형 조형물을 건립하고, 이를 관광랜드마크로 탄생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와 포스코는 지난 2023년 12월 세계적인 작가 및 참여사를 대상으로 조형물



광양시와 포스코가 지난 26일 구봉산 정상에서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영원의 봉수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안전 기원제를 개최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디자인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스페인 출신 마누엘 몬테세린을 작가로, 아이앤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다.

작가가 제출한 5개 디자인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시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구봉산 봉수대의 역사성을 반영한 ‘(가칭)영원의 봉수대’를 최종 선정했다. 작가는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

한 의견을 디자인에 반영했으며, 포스코는 자유로운 이동과 보행 약자의 편의를 위한 경사형 승강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최종 설계가 완료됐다.

체험형 조형물은 100% 포스코 소재 제품과 기술력으로 오는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완성 후에는 광양시에 기부채납된다.

시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광양시와 포스코의 상생과 협력, 지속적인 발전을 상징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끄는 관광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과거 구봉산 봉수대가 잠들지 않고 지역의 안전을 지켜줬듯이,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꺼지지 않는 용광로의 불꽃처럼 영원히 광양시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며 “광양시와 포스코 발전의 상징이 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지역의 관광랜드마크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